

Exploring the Background of Disadvantages during the Imjin War: Focusing on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Sungbin Kim^{a,1.} & Sungho Gong^{a,1.}

^{a.} Department of History, Ajou University

^{1.}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인문대학
College of Humanities



Introduction

양난(兩亂)은 임진왜란(1592~1597년)과 병자호란(1636~1637년)을 함께 이르는 말로, 조선 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이다. 이 중 임진왜란(壬辰倭亂)은 왜의 조선 침략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조선 인구의 1/3 감소, 국토 황폐화, 문화재의 손실 등 극심한 피해를 입혀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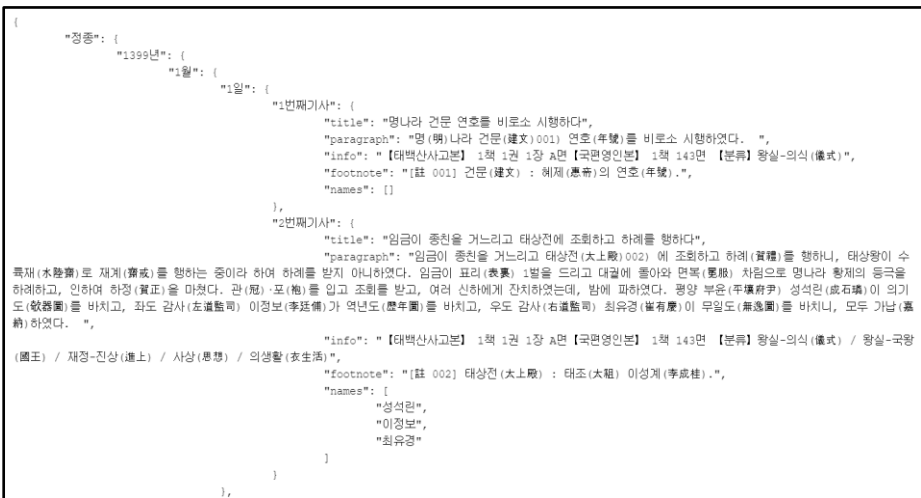
김강녕(2008)과 서천규(2019)는 조선이 일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원인을 ① 당파 간의 갈등으로 국방의 중요성을 망각했던 점, ② 무사안일주의로 주변국의 정치·군사적 변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점으로 지목하였다. 다만, 김강녕(2008)과 서천규(2019)를 포함하여 임진왜란에 관한 역사를 다루는 연구는 고서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추론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본 프로젝트는 질적 연구의 기초가 강한 선행 연구와 달리 《국역 조선왕조실록》 텍스트를 웹사이트에서 추출하여 양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양적 연구는 풍부한 사전 지식 없이도 그 관계의 핵심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조선이 임진왜란을 미리 차단하지 못하고 왜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한 원인을 ‘군사’, ‘정론(政論)’, ‘외교’의 정량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Methods

① 말뭉치(Corpus) 수집

국가편찬위원회에서 웹에 데이터화 한 《국역 조선왕조실록》 텍스트에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의 BeautifulSoup, Selenium 패키지와 ChromeDriver를 사용하였다. Xpath를 활용해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코드를 작성하여 기사 일자, 기사 제목, 기사 전문, 인물명, 장소명, 서적, 각주, 분류색인 등을 추출하였다. 1대 태조부터 27대 순종까지의 텍스트 파일을 .json 형태로 오른쪽과 같이 저장하였다.



(용량 913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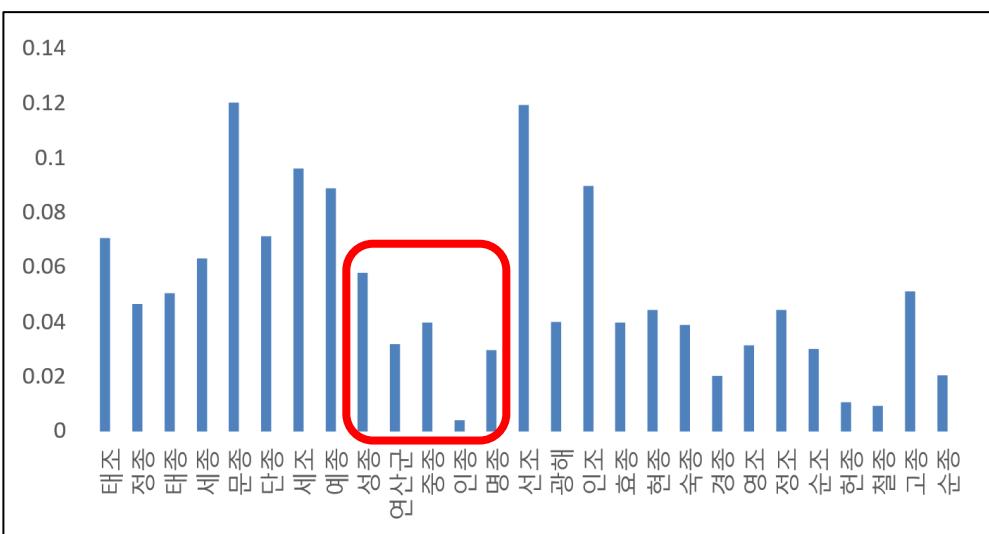
② 말뭉치 정제 및 빈도수 분석

①에서 수집한 .json 형식의 《국역 조선왕조실록》 데이터와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추출된 색인 별로 빈도수를 세어서 데이터프레임을 아래와 같이 생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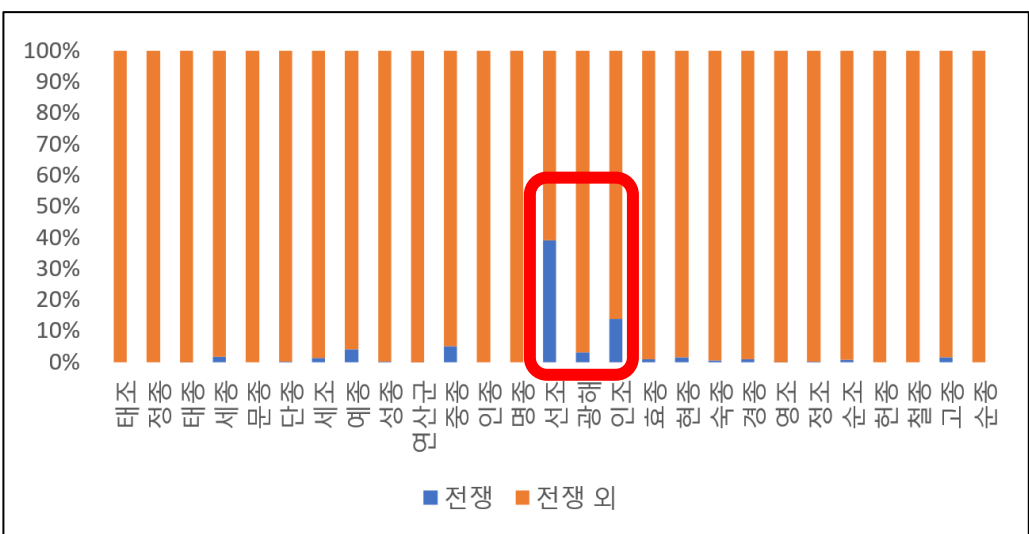
연도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세조	연세	인조	효종	현종	경종	고종	고종	고종	고종	고종	고종
인사	859	97	160	328	388	276	411	64	61	142	4	1	12	20	23	0	71	7	5	56	4	15	36	2	23
군사	320	60	42	110	105	57	52	28	13	20	0	0	2	0	7	0	24	1	0	2	5	0	4	21	2
물가	3950	858	762	1741	2551	1013	1852	368	204	861	146	20	75	63	324	11	584	22	71	61	176	70	84	451	6
상업	16099	1559	2142	5212	5843	3832	6706	97	716	2345	179	65	133	1178	763	33	1702	92	216	137	337	208	482	883	9
도량형	1204	218	180	654	442	661	512	1	75	260	9	8	7	36	53	2	125	5	4	31	64	27	33	77	5
농업	1110	206	147	720	712	418	537	272	84	158	5	3	9	45	46	4	195	5	3	7	52	37	33	157	5
수산업	5201	364	959	2523	2516	2351	2736	509	369	877	55	12	54	190	284	5	580	40	40	65	106	96	319	477	23
방합	478	34	87	289	454	226	240	96	47	96	1	1	4	3	14	0	34	0	7	4	9	12	14	44	1
공업	20404	5071	2836	8908	10968	4624	5207	244	1235	2406	153	112	209	244	591	28	1740	94	61	84	465	752	517	2130	45
전설	16431	2652	753	3197	4657	923	934	310	273	1914	71	105	71	65	314	2	305	62	57	135	253	378	176	777	4
가족	16723	19186	3940	15095	12342	3798	4874	1365	1137	1994	239	116	167	126	615	12	1445	121	254	56	293	645	712	1316	113
초구	452	295	37	189	115	6	121	10	13	25	0	0	4	8	1	0	6	1	0	0	8	1	5	2	1
신분	6102	3739	1021	4245	3524	979	1054	853	395	845	24	21	82	17	146	1	507	24	13	82	84	242	171	325	21
외방	11080	6789	1903	9704	7324	7966	10239	613	752	1382	29	64	91	171	430	9	536	45	61	57	174	194	242	470	52
방문	7892	7261	1426	8837	8866	2070	3428	3770	510	1051	10	32	55	199	258	2	272	12	36	100	562	385	122	235	8
외방	5899	2570	1096	3932	3412	3074	3666	679	409	1262	38	25	52	253	223	3	423	69	18	23	66	140	308	257	17
외방	1993	1121	196	2328	1342	435	380	106	93	390	40	9	7	46	27	1	101	14	6	7	38	27	45	138	8
외방	3218	2018	232	4899	2505	895	490	19	248	693	10	12	33	40	81	2	555	36	4	7	47	27	248	199	24
외방	8930	6412	981	12057	7747	2103	1301	602	873	1694	823	24	36	160	186	12	866	37	18	23	62	82	231	301	18

(※ 분류 색인표는 국가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sillok.history.go.kr/manInfo/branchList.do> 를 참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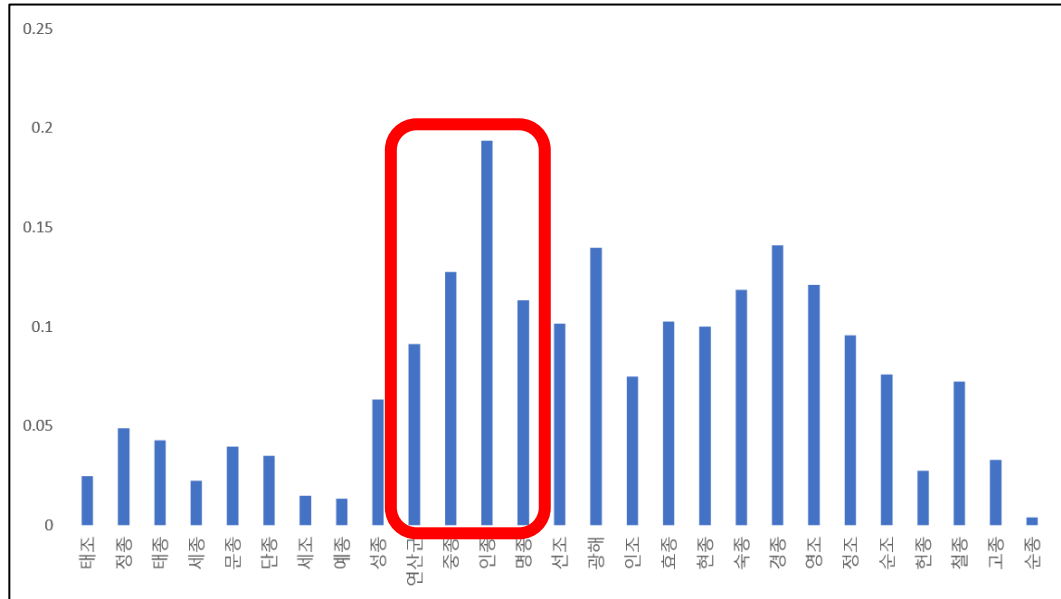
Visu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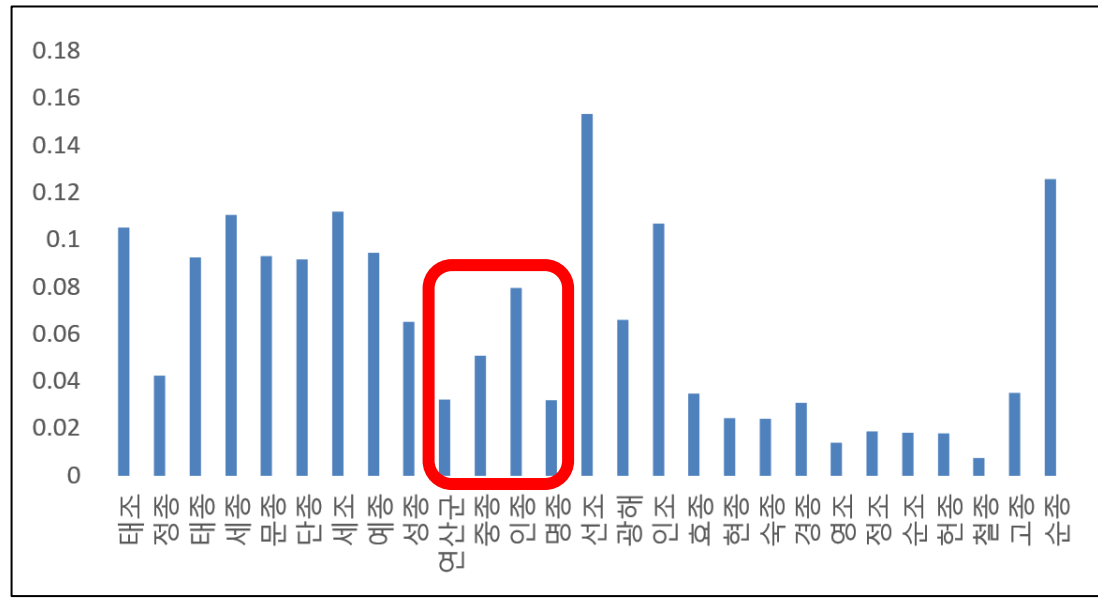
[그래프1] 왕대 별 기사 중 ‘군사’의 비율



[그래프2] 왕대 별 ‘군사’ 기사 분류 (전쟁/전쟁 외)



[그래프3] 왕대 별 기사 중 ‘정론’의 비율



[그래프4] 왕대 별 기사 중 ‘외교’의 비율

Excel에 내장된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여 그래프1~4를 출력하였다. 이어지는 결과 해석에서 그래프의 빨간 상자 부분을 주목하길 바란다.

Results

1. 정량적 지표를 통한 전쟁 시기 파악

[그래프1]에 따르면, ‘군사’ 관련 기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왕은 5대 문종과 9대 성종이다. ‘군사’라는 색인은 ‘군정(軍政)’, ‘중앙군’, ‘병법’, ‘전쟁’ 등의 하위 색인을 포함한다. 특히, [그래프2]에서 성종은 ‘전쟁’과 관련된 기사의 비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전쟁의 시기를 정량적 지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2. 국방에 관한 인식 : 조선 초기

조선은 개국 후 200년간 평화의 시대를 누렸다. 그런데 [그래프1]을 보면, 조선 초기 임금(태조~성종)의 기사에는 전쟁을 겪은 선조나 인조만큼 많은 ‘군사’ 관련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태조부터 성종까지 중앙 정부에서 군정(軍政)이나 중앙군, 지방군, 또는 병법 등을 빈번하게 논의하고 수시로 변혁하였기 때문이다. 즉, 북로남왜(北虜南倭)의 상황에서 국방에 관한 인식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세종 대 대마도 정벌과 4군 6진 정책이 국방에 효과적이었던 이유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3. 국방에 관한 인식 : 16세기 초

[그래프1]을 보면 16세기 초 임금(연산군~명종)의 ‘군사’ 기사 비율은 현저히 적다.

이는 조선 초기 임금들과 반대로 국정에서 군사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적게 다루었고, 즉 국방에 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6~17세기 동아시아의 사회·문화와 국제 정세는 급변하였다. 이러한 정국에 효율적인 군사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전쟁 발발 20일만에 왜가 서울을 점령하고 두 달만에 평양을 함락시킬 정도로 조선이 수세에 몰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4. 질적 분석 결과를 정량적 지표로 검증

‘Introduction’에서 언급한 질적 연구는 공통적으로 ① 당파 갈등과 ② 외교 활동의 공백기를 임진왜란 초기 조선 수세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래프3]과 [그래프4]의 빨간 상자 부분을 주목해보면, 연산군~명종 대는 다른 시기에 비해 ‘정론’의 비율이 높고 ‘외교’의 비율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3]은 당시 동·서인의 당쟁으로 사회가 일어나는 등 정치적인 논쟁이 빈번하게 일어난 점을 반영하였다고 해석된다. [그래프4]는 주변국과의 교류가 적어 타국에 관한 정보 판단에 있어 수집 수단과 분석체계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질적 분석 결과를 이처럼 정량적인 지표로 검증할 수 있었다.

REFERENCES

1. 사료 『조선왕조실록』
2. 논문 김강녕, 『임진왜란의 전황과 교훈에 관한 연구』, 『서사사회과학논총』 통권 제1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pp. 1-41. 서천규,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군사대응책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학논총』 제8집 제2권, 미래군사학회, 2019, pp. 185-212. 허태구,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군사력 강화 시도와 그 한계』, 『군사』 제109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8, pp. 245-280.